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 은 경[†] 이 혜 성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개인의 진로결정효능감 신념이 진로 태도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남녀로 남녀 비율과 중·고등·대학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여 총 2,007명이었다. 그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이후 진로결정효능감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요인 중 목표선택과 관련된 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남녀 모두 자기조절효능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감’보다는 ‘효능감’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 형성에 자기조절효능감 이외에 학업자신감과 학업 자기조절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수준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태도성숙, 일반적자기효능감, 학업관련 자기효능감

진로 발달(career development)이란 개인의 진로 목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진로성숙’, ‘진로태도발달’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진로 발달 과정이나 진로선택 요인들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최근들어 Bandura (1986)의 자기효능감이론에 기초를 둔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수준과 같은 인지적

이은경, 이혜성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은 경, (100-824)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2-2231-5190 E-mail : eklea@kyci.or.kr

요소와 이들 요소가 성, 인종, 사회적지지, 진로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같은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진로발달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Taylor와 Betz(1983)는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이나 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¹⁾(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을 제안하여 진로발달과 연관 지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정의의 내리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을 수량화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미결정이나 진로탐색 활동, 진로태도(Luzzo, 1993), 자존감(Robbins, 1985),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Foss & Slanelly, 1986), 성역할 자아개념(Arnold & Bye, 1989)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진로결정효능감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학업성취와 진로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인 흥미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졌다. Lent, Brown과 Larkin(1986)은 공학/과학 계열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성취, 전공의 지속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공학계열의 직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서 직업과 학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보

다는 학업수행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직업흥미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 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수행간의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일년후 이들은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공학계열 전공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이 학업성적과 학문지속성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Lent & Brown, Larkin, 1987). Brown, Lent와 Larkin(1989) 역시 진로결정효능감 중 결과기대 변인은 중위권 학생들의 학업성공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학업성적과 학문지속성을 예언하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Lenox와 Subich(1994)는 18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과 흥미가 선형적인(linear)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trong 흥미검사 결과 현상형, 탐구형, 진취형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과 흥미간에 각각 .68, .62, .62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들은 각 개인에게 흥미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며 일단 한번 흥미가 발달되면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3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효능감 요인과 진로 태도 성숙 요인은 서로 상관(.6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확신성 차원이 매우 높은 상관(각각 .57, .6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태도 총점과 5개 하위 요인 모두에 대해 진로결정효능감 점수가 전체의 약 40%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무엇보다

1)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은 진로효능감, 진로관련 효능감, 진로결정 효능감 등 통일된 용어로 쓰이고 있지는 않으나 본 논문에서는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효능감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로결정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라 지칭한다

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의 학업성취, 학업수행, 학업의 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실의 주된 호소문제로 파악되는 진로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진로 태도 성숙과 진로결정효능감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태도 성숙의 정도는 주로 대학 합격(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발달단계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효능감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나 학업관련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각 8개의 중·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교에서 총 2,132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를 골고루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이중 결측치를 포함하거나 성의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007부의 자료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자 822명(41.0%), 여자 1185명(59.0%)이며, 학년별로는 중학생 712명(35.5%), 고등학생 753명(34.1%), 대학생 542명(30.4%)로 분포되어 있다.

측정도구

진로결정효능감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5개 하위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DMSES-SF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범위는 .73에서 .83까지이며,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계수는 .94로 나타났다.

CDMSES-SF의 원 척도와 달리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평가를 제외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진로결정효능감 총점 .85로 나타났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는 5개 하위 요인의 총 47문항의 5가지 하위 요인(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표지향성, 확신성)의 5요인으로 1-5점 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고등학생 1,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가지 하위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이다(이기학, 1997).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진로 성숙 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결정성 .78, 목적성 .83, 확신성 .82, 준비성 .77, 독립성 .84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비교적 안정성 있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정은(1997)의 것을 김아영(1997a)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예비척도 개발 연구 결과에서 얻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자신감(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 자기조절 효능감(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 과제난이도 선호(목표설정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 세 개의 하위 척도 속에 포함된 총 24개의 Likert 6점 평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1~.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 요인별로 자신감 요인 .79, 자기조절효능감 요인 .82,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은 .80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인영(1999)이 제작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요인(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 정도,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요인(학습자의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 10문항), 그리고 과제수준 선호요인(학습과제나 목표설정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6문항의 Likert 6점 척도로 최종적으로 제작되어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인간 상관분석 결과 두 척도에서 상응되는 구인들간의 상관이 높은 것(.62~.74)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상황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보다 유용한 변인으로 해석되었다. 박인영(1999)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자신감 .74, 자기조절효능감 .76, 과제난이도 선호 .84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 요인별로 자신감 요인 .72, 자기조절효능감 요인 .75,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은 .79로 나타났다.

결과 및 해석

연령별 진로 태도 성숙 양상

회귀분석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 독립성, 목적성과 진로 태도 성숙 총점은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결정성 차원($F=11.68, p<.001$)은 중학생집단($M=25.25$)과 대학생 집단($M=26.71$), 고등학생 집단($M=25.29$)과 대학생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결정된 정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확신성 차원($F=22.63, p<.001$)은 중학생 집단($M=31.82$)과 고등학생 집단($M=32.05$), 대

표 1. 진로 태도 성숙의 연령별 평균(표준편차)

진로태도성숙	중		고		대	
	남	여	남	여	남	여
결정성	25.25(7.07)		25.29(7.89)		26.71(7.26)	
확신성	31.82(6.31)		32.05(6.31)		33.52(6.05)	
준비성	28.85(6.46)		31.21(5.27)		31.46(4.60)	
목적성	23.37(6.26)		24.55(5.41)		24.79(5.23)	
독립성	31.83(6.26)		34.03(5.84)		33.69(5.74)	
총점	141.14(21.02)		147.14(20.42)		150.18(20.02)	

학생 집단(M=33.52)간에 모두 차이가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비성 차원(F=67.01, p<.001), 목적성 차원(F=37.56, p<.001), 독립성 차원(F=35.08, p<.001)은 중학생집단과 대학생 집단간,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정도,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고등학생을 기점으로 하여 보다 뚜렷하게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진로결정효능감 양상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산분석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의 전체 점수와 목표선택, 문제해결, 직업정보 요인이 연령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점수와 목표선택, 문제해결, 직업정보의 하위요인들의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목표선택(F=19.34, p<.001)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해결(F=57.04, p<.001)에 대한 개인의 확신감 역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학과 관련된 문제가 당면과제이고, 대학생의 경우 진학보다는 실제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대학생들이 보다 많은 문제

표 2. 진로결정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

진로결정효능감	중		고		대	
	남	여	남	여	남	여
목표선택	4.16(0.90)	4.23(0.89)	4.25(0.79)	4.32(0.81)	4.41(0.77)	4.39(0.74)
미래계획	3.64(0.85)	3.55(0.89)	3.58(0.83)	3.44(0.85)	3.78(0.77)	3.61(0.82)
문제해결	3.81(0.93)	3.75(0.96)	3.95(0.84)	3.82(0.91)	4.12(0.87)	4.22(0.77)
직업정보	3.75(1.13)	3.77(1.06)	3.91(1.07)	4.18(0.96)	3.83(1.00)	4.10(0.94)
총 점	11.61(2.39)	11.57(2.49)	11.79(2.16)	11.59(2.26)	12.35(2.16)	12.24(2.12)

해결에서의 효능감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정보(F=21.89, p<.001)는 고등학생 집단이 평균치에서 가장 높아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F=25.64, p<.001)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고 모두 대학생 집단과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 대학생이 되고 난 후부터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 태도 성숙과 진로결정효능감과의 관계

측정된 진로 태도 성숙 총점과 다섯 개 하위요인을 준거변수로 하고, 진로결정효능감과 심리적 변인(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자기효능감, 학업적

효능감, 친구와의 애착안정성), 배경변인(부모 학력, 모의 직업경력,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을 예측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자의 경우 진로 태도 성숙을 예측하는 변수는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중학생은 분산의 13%, 고등학생은 38%, 대학생은 42%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하위요인별로는 결정성 차원의 경우 44%, 확신성 차원의 경우 46%를 진로결정효능감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적성과 독립성에는 진로결정효능감의 설명분산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차원에는 진로결정효능감보다 친구와의 애착변인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대학생 37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 차원과 확

표 3. 진로결정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수(남자의 경우)

준거변수	단계	예측변수	R ² 증가량	F	진체설명량(R ²)
목표선택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23	257.01***	0.25956993
	2	학업자신감	0.01	14.17***	
	3	일반과제난이도선호	0.00	3.99*	
미래계획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24	271.54***	0.26510694
	2	학업과제난이도선호	0.01	11.30***	
문제해결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21	225.77***	0.26387646
	2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3	35.13***	
	3	학업자신감	0.00	8.61**	
직업정보	1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2	20.82***	0.03126255
	2	아버지 학력	0.00	5.49*	
진로결정 효능감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30	352.78***	0.32177026
	2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1	19.05***	
	3	학업자신감	0.00	6.10*	

주. *p<.05, **p<.01, ***p<.001

신성 차원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성별요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일 수 있으나 성별의 차이는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여자의 경우 역시 진로 태도 성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중학생의 경우 분산의 46%를 설명하고 있어 남자중학생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외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학력,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이 분산의 49%를 설명하고 있어 여자 중학생들은 효능감이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감 이외에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이 전체 분산의 각각 50%를 설명하고 있어 매우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효능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진로 태도 성숙을 예측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목표선택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총 설명분산의 55%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목표선택이라는 차원은 자신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목표선택에 있어서 특히나 여성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이 강력한 예측변수로 지적된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정확한 자기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관 등이 모두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목표선택은 자기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진로상담영역에서 광범위한 자신감의 증진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희망과 연결된 효능감 증진이

보다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진로결정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진로결정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박인영(1999)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간 상관도 .62-.74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간의 상관도 .76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업상황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 역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성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개인이 자신수행에 대한 확신감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세가지 효능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남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성요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19~.48,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과는 .08~.45정도로 중간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효능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진로결정효능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30%).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판단을 근거로 하는 목표설정과 자기반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하는데 결국 진로결정과 관련된 확신은 광범위한 자신감이나 학업에서의 자신감보다는 자신의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확신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

표 4. 진로결정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수(여자의 경우)

준거변수	단계	예측변수	R ² 증가량	F	전체설명량(R ²)
목표선택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31	537.30***	0.34613581
	2	학업자신감	0.02	37.12***	
	3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0	9.68***	
	4	일반과제난이도선호	0.00	6.36*	
	5	학업과제난이도선호	0.00	4.55*	
미래계획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27	446.50***	0.31774141
	2	학업자신감	0.02	38.58***	
	3	학업과제난이도	0.00	13.96***	
	4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0	6.72**	
	5	일반자신감	0.00	6.54*	
	6	연령	0.00	5.79*	
문제해결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26	419.33***	0.30293559
	2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2	34.29***	
	3	학업자신감	0.01	17.42***	
	4	연령	0.01	16.90***	
직업정보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03	43.29***	0.05141761
	2	연령	0.00	11.32***	
	3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0	5.03*	
진로결정 효능감	1	일반자기조절효능감	0.35	660.69***	0.40011457
	2	학업자신감	0.02	46.02***	
	3	학업자기조절효능감	0.01	23.17***	
	4	일반과제난이도선호	0.00	6.65*	
	5	일반자신감	0.00	4.78*	

주. * $p < .05$, ** $p < .01$, *** $p < .001$

로 파악할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역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21%~24%), 직업정보의 경우 학업에 있어서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설명량은 적지만(2%)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성요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30~.59로 남자보다 높아 여자들에게 있어 진로결정효능감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과는 .06~.50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의 경우 진로결정효능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30%).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판단을 근거로 하는 목표설정과 자기반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하는데 결국 진로결정과 관련된 확신은 광범위한 자신감이나 학업에서의 자신감보다는 자신의 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확신과 연관되어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특히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은 총 분산의 26~31%를 설명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효능감 이외에 학업자신감과 학업 자기조절효능감이 함께 진로결정효능감 총분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진로결정효능감이 학업상황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논 의

본 연구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인 진로문제를 이해하고 돕는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관련 연구들은 진로탐색 행동, 진로태도 성숙의 진단, 혹은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화 등 주로 진단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진로선택과 관련된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진로 태도 성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남녀간, 그리고 중·고등·대학생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진로 발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내담자의 진로문제를 다루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의 진로상담은 대부분 실제적인 진로결정보다는 내담자의 진로 정보 수집능력 향상, 적성과 흥미 등의 자기인식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일반적인 적응문제를 다루는 상담방략과 차별화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는 앞으로 진로상담에서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진로결정효능감 증진과 관련된 상담자의 방략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진로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기술적 정보의 수집이나 성격의 이해를 기초로 한 진로탐색의 측면이라면 앞으로 자기효능감 증진과 연관된 자기조절체계 관리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소를 강화하는 인지행동 프로그램개발의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모든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진로관련 행동은 사회경제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진로발달이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부모의 학력과 연령, 직업을 모두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발달과 관련있는 변인들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친구와의 애착안정성,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예측변수로 하여 진로발달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력, 어머니의 직업경험 등은 설문내용에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

업성취도를 포함한 다른 변인들을 연구변인으로 하여 과연 진로발달과 진로결정효능감이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아영 (1997a).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박인영 (1999).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nold, J., & Bye, H. (1989). Sex and sex role self-concept as correlat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17, 201-20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tz, N. E., & Hackette,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lustein, D. L., & Noumair, D.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433-441.
- Brown, S.D., & Lent, R.W. (2000).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rd ed.)*. New York:Wiley.
- Brown, S.D., Lent, R. W., & Larkin, K.C. (1989). Self-efficacy as a moderator of scholastic aptitude-academic performance relationship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64-75.
- Foss, C. J., & Slaney, R. B. (1986). Increasing nontraditional career choices in women : Relation of attitudes toward women and responses to a career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91-202.
- Hackette,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Lent, R.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In S.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pp.419-451)*. New York: Wiley.
- Lenox, R.A., & Subich, L.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302-31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e,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 373-421)*. San Francisco: Jossey-Bass.
- Lent, R. W., Brown, S. D., & Larkin, K.C. (1986).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265-269.
- Lent, R. W., Brown, S.D., & Larkin, K.C. (1987).

- Comparison of three theoretically derived variables in predicting career and academic behavior: self-efficacy, interest congruence, and consequence thin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93-29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83-496.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8.
- Luzzo, D. A., Hasper, P., Albert, K. A., Bibby, M. A., & Martinelli, E. A. Jr. (1999). Effects of self-efficacy-enhancing interventions on the math/science self-efficacy and career interests, goals, and actions of career undecided college students. In Isaacson, L. E. & D. Brown (Eds.),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Allyn and Bacon.
- Taylor, K. M., & Betz, N.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원 고 접 수 일 : 2001. 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20
게 재 결 정 일 : 2002. 2. 28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Eun Kyoung Lea

Hae S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attitude & maturity on each stage, providing basic concept in building up the career counseling program. Toward this end, 2,007 students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collected and this survey was carried out at school.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career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age. The older groups definitely show their confidence and decisiveness in career, and the strong goal-oriented attitude toward job and career is much more clearly shown than from the senior highschool groups.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has divided the whole into two group; one is junior high schoolers and the other is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its strong lead in the older groups, and got stronger since they entered universities.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taken to measure how fa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ould be involved in career development. The analysis has told us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s turned out to be a more important variable to girls(45-50%) than boys(13-42%), and 55% of them regarded goal selection as the most critical variable of all. According to the analysis, self-regul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both boys and girls to measure u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elf-regulation is a kind of efficacy which leads to goal setting and self-response based on self-judgement. Confidence on the career decision is not so much to do with general sense of self-confidence or confidence on his or her academic achievement as self-regulation to control his or her own system, which can be named as 'self-efficacy' in a more positive way.

Key Words : *career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 maturity, self-efficacy, academic self-efficacy*